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도서관 협력체계 연구*

A Study of the Cooperative System Models for the Regional Central Library

한복희(Bock-Hee Hahn)**, 이성숙(Sung-Sook Lee)***
이상호(Sang-Ho Lee)****, 오종필(Jong-Pil Oh)*****

목 차

- | | |
|-------------------------------------|--------------------------|
| 1. 서 론 | 3.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협력 사례 분석 |
| 2. 대전지역 도서관간 협력 및 지역대표
도서관 운영 현황 | 4.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
| | 5. 결론 및 제언 |

초 록

2006년 개정된 도서관법은 도서관정책 추진체계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여 그 실행을 위한 제도적 기구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법에서는 지역대표도서관은 지역 내 모든 관종을 포괄하여 지역 도서관 정책을 추진하도록 구상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협력 시범운영과 직원 설문, 간담회를 통해,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지역단위 협력 방안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협력의 지역범위별, 관종별, 분야별 차원을 고려하여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협력체계 모델'과 '운영모델', '단계별 추진계획'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역대표도서관 지정·건립 및 정착 방안'과 '제도적 개선 방안', '개별도서관 역량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Library Act, which was revised in 2006, stipulates that systematical organizations should be established concentrating on the responsibilities and role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metropolitan municipalities in connection with the application of library policies. According to the Act, the Regional Central Library is supposed to apply the library policies covering all kinds of local libraries. Through trial cooperative operation led by the Regional Central Library and survey and discussion among staff, this study reviewed the possible alternatives for coordination in a region focusing on the Regional Central Library. The study proposed a 'Cooperative systematic model led by the Regional Central Library', an 'Operational model', and a 'Step-by-step execution plan' in consideration of the types of regions, the class of the libraries, and their fields. In addition, it presented a 'Scheme for the appointment, establishment, and coordination of the Regional Central Library', a 'Scheme for systematic enhancement', and a 'Scheme for the capacity building of respective libraries'.

키워드: 지역대표도서관, 협력체계, 협력모델, 협력운영모델, 도서관정책

Regional Central Libraries, Public Library, Cooperative System Models, Library Policy

* 이 논문은 문화체육관광부 과제인 "지역대표도서관 협력체계 시범운영을 통한 협력 모델 개발" 최종보고서 일부 내용을 요약·수정·보완한 것임.

**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hanbh@cnu.ac.kr)

***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조교수(infolee@cnu.ac.kr)

**** 충남대학교 도서관(leesh706@cnu.ac.kr)

***** 한밭도서관 자료정책과(ojump@korea.kr)

논문접수일자: 2010년 2월 11일 최초심사일자: 2010년 2월 12일 게재확정일자: 2010년 2월 17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1): 267-295, 2010. [DOI:10.4275/KSLIS.2010.44.1.267]

1. 서 론

1.1 연구 배경과 목적

21C 지식정보사회로 전환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된 정보자료의 폭발적인 증가와 이러한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는 고도화, 전문화, 다양화되고 있다. 각각의 개별도서관들이 출판되는 지식정보자원을 모두 확보하고 이용자 서비스 요구에 대응하기에는 예산과 인력이 한계상황에 도달하였다.

여러 도서관들이 서로 협력해서 지식정보자원과 서비스의 공유를 통해 접근점을 확장하고, 자원의 공동 활용으로 이용자 요구에 대응함으로써 이용자와 도서관 상호간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도서관협력은 더욱 중요하며 또한 필수적인 사항이다. 도서관간의 협력으로 개별도서관의 제한된 예산과 인력의 장애를 극복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이용자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으므로 도서관 협력체계 구축은 꼭 필요하다.

2006년 도서관법 개정은 도서관정책 추진체계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여 그 실행을 위한 제도적 기구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지역 대표도서관과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등 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다. 도서관법에서는 지역대표도서관은 지역 내 모든 관종을 포괄하여 주로 도서관 지원 및 협력을 통하여 지역 도서관 정책을 추진하도록 구상되어 있다. 이전에도 지역대표관 체제가 있었으나 명목뿐이었고,

새로 지정 설립되는 대표도서관은 도서관정책 실행기구로 도서정책팀이라는 조직을 두도록 하였다.

지방으로 도서관정책이 이전되었다고 하나, 현재 16개 시도 중 4개만이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될 정도로, 지방도서관정책의 입법취지를 이해하여 지방도서관정책체계를 추진할 역량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도서관법에서 지역대표도서관은 지역의 관종별 도서관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총괄하는 기관으로, 관련 정책 수행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내 도서관간의 협력체계 구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구체적으로는 시범운영을 통한 지역대표도서관 협력모델 개발이 시급하다.

지금까지 지역대표도서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시범운영 실시를 통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대표도서관 협력 시범사업을 통한 협력방향을 모색하여 협력모델을 개발하고 지역대표도서관 업무 추진 시 수행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대표도서관 협력체계 방안을 연구하고, 협력체계 운영모델을 시범 적용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이 연구는 문헌조사와 설문분석, 간담회, 발굴된 협력 시범운영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분석은 2009년 9월 현재 대전지역 도서관(대학/공공/학교/전문)에 근무하는 각각의 직원을 대상으로 9월 1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실시하였고, 105부를 배포하여 100부를 회수하였

다. 또한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지역단위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각 관종별, 전관종 간담회를 개최하여, 도서관 관리자 및 실무자들로부터 각 도서관별 상황과 협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시범운영 사례는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협력 사례인 공공도서관 공동반납제 운영, 공공도서관 통합검색목록 서비스 구축, 작은도서관 통합도서목록 서비스 구축, 공공도서관 중장기발전전략 수립, 공공도서관-학교도서관 회원카드 인증제, 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 원문복사서비스, 대전시 도서관협약서 체결, 희망의 책 대전 본부와의 협력 사례를 분석하였다. 시범운영을 통해 도출된 사안을 지역대표도서관중심의 지역단위 협력모델에 반영하였다.

연구대상은 지역대표도서관이 가장 먼저 지정되었고,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 위원회가 구성되어 시범운영을 위한 요건을 가장 잘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대전지역으로 한정하였다.

2. 대전지역 도서관간 협력 및 지역대표도서관 운영 현황

2.1 대전지역 도서관간 협력 현황

대전지역 도서관 총계는 362개이고, 이중 학교도서관 276개를 제외하면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을 합하면 총 86개의 도서관이 있다(한국도서관협회 2008). 대전시의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의 협력실무기구는 <표 1>과 같다.

우선 대전지역 공공도서관의 협력 현황을 살

펴보면, 대전시에서는 1996년 '공공도서관협의회 대전지회'를 구성하고 상호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표 2>와 같다.

다음으로 대전지역 학교도서관 협력 현황을 보면, 대전광역시 교육청은 중등교육과내에 담당 장학사와 사서담당 1명을 배치하여 학교도서관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은 2006년 표준화된 학교도서관정보시스템인 DLS(Digital Library System) 홈페이지(<http://dls.edurang.net>)를 구축하여 학교도서관 업무를 지원하고, 도서관리업무(수서, 목록구축, 대출/반납)를 자동화하였으며, 인터넷 기반의 독서지원기능을 통합적으로 서비스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2009년 3월부터 사서교사 21명으로 구성된 학교도서관 운영지원단을 권역별로 3개팀(동부교육청 관내 초·중학교도서관지원, 서부교육청 관내 초·중학교 도서관 지원, 고등·특수 학교도서관지원)으로 나누고 도서관 상호간의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학교도서관 운영지원단의 지원내용은 학교도서관 운영 관련 제반사항 상담 및 지원,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지원학교 상담 및 지원, 우수자료 개발, 각종 행사 지원, '대전학교도서관 교육연구회' 홈페이지(<http://djsl.edurang.net>) 운영 등이다.

다음으로 대전지역 대학도서관 협력 현황을 살펴보면, 대전과 충청지역을 포괄하는 대전·충청지역 대학도서관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도서관 실무자간 정보교환, 업무협의 내에서 주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도서관간에 별도의 협약을 맺고 협력하고 있다. 대전지역 대학간 맺은 자체 협약의 사례는 <표 3>과 같다.

〈표 1〉 대전지역 협의회 현황

구분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 도서관
	공공도서관 협의회 대전지회	학교도서관 운영지원단	대전·충청지역 대학도서관협의회	
지역범위	대전	대전	대전·충청	
참여도서관수	17	21	6	
주요 협력 내용의 특징	자료통합검색, 대출카드공 유, 독서행사 공동개최, 분담 수서 등 협력사업 위주	협력사업보다는 도 서관과 도서실 지원 업무 위주	정보교환, 업무협의 내에서 협력 이 이뤄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는 개별도서관간에 별도로 협약 을 맺음	없음
대전지역도서관수	17	276	24	32

〈표 2〉 대전지역 공공도서관 상호협력 현황

분류	항목	참여도서관수
도서관정보화사업	도서관간 정보공유 현황(도서목록통합검색시스템)	17개관
	공동목록	17개관
분담실적	분담수서	7개관
상호대차	관외대출(실물대차)	12개관
공동보존	자체보존서고	8개관
문화프로그램 협력 및 공동홍보	문화프로그램 협력	11개관
	공동홍보	17개관
관외대출증 공유	관외대출증공유	17개관
복사카드 공유		14개관
도서관운영관련 협정	도서관 운영관련 협정(협약) 체결 현황	9개관
외국도서관과 교류		1개관
작은도서관과 협력		5개관

〈표 3〉 지역대학 간 자체 협약에 의한 협력 현황

협약교	협약내용	협약일	협력범위	협력대상
충남대-KAIST	자료이용 및 상호대차	1996.10.15	대출, 상호대차	교직원
충남대-한남대-한밭대	학술정보자료 공동이용	2001. 6.22	열람, 대출, 시설물이용	교직원, 재학생
대전대-목원대-배재대- 우송대-한남대-한밭대	자료공동이용	2005. 7. 5	열람, 대출, 시설물이용	교직원, 재학생
배재대-충남대	도서관공동이용	2008.12.30	열람, 대출, 시설물이용	교직원, 재학생
대전대-충남대	도서관공동이용	2009. 6.12	열람, 대출, 시설물이용	교직원, 재학생
공주교대-충남대	도서관공동이용	2009. 7. 1	열람, 대출, 시설물이용	교직원, 재학생

최근 대학도서관은 일반회원(지역주민)에게 활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의 열람석은 재학생의 전용 공간이었으나 최근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지역주민의 학습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도서 대출 책 수에서도 지역주민인 일반회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밭대 15.2%, 한남대 11.5%정도이며, 이러한 비율은 계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한국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 홈페이지 2009,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홈페이지 2009).

다음으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과의 협력을 살펴보면, 공공도서관 사서가 학교도서관을 방문하여 독서 및 도서관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공공도서관에서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운영한 프로그램으로는 독서회, 독서교실, 도서관주간·독서의 달 행사, 독서지도 특강, 문화공연, 책 축제, 인형극

공연, 전시회, 음악회 등을 진행하였다. 대전광역시내의 학교도서관 운영의 독특한 사례는 유성도서관과 지족중학교가 협약을 맺고 유성도서관에서는 도서와 사서인력을 지원하고, 지족중학교에서는 도서관공간과 도서관비품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주민과 지족중학교 학생들이 같이 이용하는 학교-공공 통합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협력 프로그램 사업은 <표 4>와 같다.

다음으로 대학과 타 관종과의 협력은 지역의 공공도서관과는 소극적인 차원의 협력뿐이며, 전문도서관과의 협력은 학술적으로 동질성이 있는 분야로서 KISTI의 상호대차시스템을 통한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학교도서관과의 협력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의 협력 현황은 <표 5>와 같다.

<표 4>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협력프로그램 사업

공공도서관명	사업명	연도	지원학교수	지원내역
가오도서관	책읽기	2007-2008	2(특수)	도서 및 독서활동지도
	인형극공연	2007-2008	16	찾아가는 인형극 공연
구죽도서관	문화행사, 초청강연회, 책축제 등	2003-	유성구 관내 학교	참여권장 공문 발송
대전평생학습관	방문 독서교실	2007-2008	14	독서지도
대전학생교육문화원	대출문고	2003-2008	72	도서 및 비품 지원
신탄진도서관	독서논술 프로그램	2007-2008	13	독서논술 교육
	찾아가는 그림책교실	2009	8	그림책 2권 읽어주고 독후활동 지도
안산도서관	나를 만나는 독서여행	2008-	2008-초등3개교 2009-초등3개교, 중등2개교	아침독서 10분, 독서심리상담
유성도서관	지족중학교와 협약체결로 지족분관운영	2002-	1	인력과 도서관지원으로 학교-공공 통합도서관 운영
한밭도서관	이동도서관	2007-2008	4	도서 지원

〈표 5〉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의 협력

대상 도서관		체결년도	내용
공공	대학		
갈마도서관	배재대학교도서관	1995년	자매결연, 도서관협약
안산도서관	한남대학술정보관	1996년	대덕구: 한남대 관학협약, 도서관상호이용협약
한밭도서관	배재대학교도서관	2000년	관학협정
한밭도서관	충남대학교도서관	2005년	학술정보자원 및 향토자료의 공동이용 협약 향토자료, 고서 원문DB구축
갈마도서관	한밭대학교도서관	2004년	도서관 관학 협약 체결
갈마도서관	혜천대학교	2001년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상호발전 협약서
신탄진도서관	목원대학교		사회봉사활동교류협약, 사회봉사활동에 관한 상호협력

2.2 지역대표도서관 지정 운영 현황

이 절에서는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도서관 지정 과정,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지역대표도서관 부서업무와 업무추진 사례를 열거하여 개정법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표도서관에 실제로 적용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전광역시 한밭도서관은 '대전광역시 대표도서관 지정 통보'(문서번호: 문화예술과-7799호(2007년 9월 20일))로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되었다. 이는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서관법 제22조에 의거 광역자치단체의 도서관 시책수립 및 지원을 위해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밭도서관을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한 것이다.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 개정)도 2007년 12월 28일 개정되었다.

개정 조례에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2007년 12월 28일 한밭도서관(지역대표도서관)의 직제는 개편되어 사서과와 열람과를 하부조직으로 하는 도서정책부를 신설하고, 사서과

내에 '도서정책담당'을 신설하여 3명을 증원하였다. 그러나 도서정책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2008년 7월 7일 폐지되었다. 이에 한밭도서관 기구는 1사업소 3과 7담당으로 조정되었고, 도서정책부(4급)는 폐지되고, 도서정책담당만 유지되었다. 지역대표도서관 지정 이후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따라 사서과장이 도서관 정책업무를 관할하게 되어 기존의 사서과 수서계가 담당하던 사서과의 주무담당으로 도서관 전산업무를 포함하여 도서정책담당(2008년 1월 30일)이 신설되었다.

또한 개정 도서관법 시행에 따른 지역대표도서관 지정 운영 계획에 의거 '대전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08년 1월 4일 공포하였다. 개정된 도서관법과 대전시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당연직과 위촉직 13명 인선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전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가 2008년 12월 28일자로 구성되었다. 또한 2009년 2월 동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동위원회에서는 공공도서관 사업추진 중점과제로 공공도서관기반 확충과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논의하였다.

한밭도서관은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된 이후, 운영될 지역의 도서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1년간 계획하고 예산확보에 노력한 결과 '시민 도서관 서비스 방안'을 위해서는 도서관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그 방법으로 공공 도서관 중장기 발전 연구 용역, 지역 도서관 서비스 연계방안, 도서관 수요자의 요구 조사 등을 수행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도서관 운영개선 업무보고를 들 수 있다. 2008년 3월 12일 '도서관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였다. 업무보고에서는 대전시 도서관의 현안문제인 도서관 시설 환경 및 정보서비스 개선, 도서관 역할 정비 및 강화 운영 등을 보고하였다. 둘째, 대전지역 공공도서관 14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은 대전광역시 공공도서관 이용주민들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이용 동향을 조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셋째, 한밭도서관이 중심이 되어서 진행한 주요사업을 들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대전시 공공도서관 공동반납제 운영, 대전지역 공공도서관 통합 검색목록 서비스 구축, 대전지역 작은도서관 통합도서목록 서비스구축 지원, 대전시 공공도서관 중장기발전전략 수립 등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3.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협력 사례 분석

3.1 대전지역 공공도서관 공동반납제 운영

2008년 1월 한밭도서관 중심의 지역대표도

서관 체제로 출범함으로 통합 서비스 방안을 모색하고, 「책으로 행복한 대전」 선포식에 따라 시민들의 도서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대출 도서를 가까운 도서관에서 반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8년 3월부터 대전시 공공도서관 공동반납제를 운영하고 있다. 공동반납제는 지역도서관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과 각 구별 거점도서관을 통한 도서반납서비스를 강화한 점을 의의로 들 수 있다.

공동반납제 운영방법을 보면, 각 공공도서관에서는 한밭도서관 반납도서목록을 작성·송부하고 한밭도서관은 구·교육청소속 도서관 반납도서목록 작성 및 반납도서에 순회 시 작성한 목록과 반납도서를 함께 인수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도서회수차량은 주 2회(화, 금 오후 4시간)로 운영되었다. 공동반납제 홍보를 위해 한밭도서관 소식지, 시청보도자료, 지역신문, 한밭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하였다.

주요 실적을 보면, 2008년 12월 30일 현재 한밭도서관 도서 반납 600권, 264권 반납 대행되었다. 도서관별로는 학생 159권, 테미 41권, 서구도서관 242권, 유성 104권, 동구 37권, 대덕구 16권 순이었다. 2009년 11월 6일 현재 2008년도 보다 이용이 증대되고 있으며, 한밭도서관 도서 반납 874권, 한밭 외 도서관 377권 반납 대행되었다. 구별로 보면, 서구 412권 > 중구 학생 212권, 테미 36권 > 유성 138권 > 동구 25권 > 대덕구 7권 순으로 나타나. 이용자는 한밭도서관과 가까운 생활권 도서관위치와 이용 순위가 거의 일치하였다. 결과적으로 한밭도서관에서 가까운 중구에 위치한 도서관과 둔산을 포함한 비교적 가까운 서구도서관지역에서 반

납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덕구 지역은 도서관이 서로 면 이유로 이용이 저조하였다.

이 사업이 시민편의를 위한 제도를 시행하여 열린 도서관으로의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있다 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 되었다. 대부분 자관도서관이 한밭도서관 자료 (70%)를 반납대행해 주는 형식이며, 구별 지정도서관으로 1차 취합함으로 거점도서관이 아닌 도서관 이용 불편, 창구 직원 자료구분 혼란 (자관반납도서 또는 타관반납도서)의 문제가 있었다. 구단위 도서관 담당자 이외에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았고, 오히려 한밭도서관 업무를 도와준다는 사고가 있었다. 이는 처음에 대출·반납을 동시에 계획했으나, 협력회의 시 각 구도서관에서 운영인력, 부대 비용 등을 이유로 고사했기 때문에 반납서비스로만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한밭도서관 담당자가 열람(자료운영)과 제1자료실(대출자료실)을 담당하여 업무가 과중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008년 말 반납 도서 864권 중 380권(57%), 2009년 11월 1,251 권중 578권(46%)이 아동도서로 나타났다. 한밭도서관에서는 일반도서와 아동도서를 다시 나누어야 하고, 구도서관에서는 자관 도서반납과 구분하여 반납 장부목록과 반납실물도서를 보관하다가 1주일 2회 정도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호소하였다.

이 사업의 확대 개선방안으로는 도서대출·반납 전담 담당자 확보 및 전용 소형 차량 1식 운영, 관내 모든 공공도서관의 대출과 반납 대행으로 확대, 1일 1회 동구, 대덕구, 서구, 유성구 모든 공공도서관의 순회 등을 들 수 있고,

이러한 확대 개선을 위해 확보해야 할 예산은 R.V 밴형 차량 1대, 전담운전원, 대출반납전담자 각 1명(2명 소요), 연간차량운영유지비(유류, 보험료, 차량제세 등)를 들 수 있다.

3.2 대전지역 공공도서관 통합검색목록 서비스구축

대전지역 공공도서관 통합검색(목록)시스템 구축 사업은 대전광역시 관내 공공도서관의 소장도서 목록을 인터넷을 통해 취합하여 통합 목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검색엔진 색인 작업 후 각 도서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 구축사업은 2008년 12월 11일부터 2009년 2월 11일까지 진행되었고, 총사업비는 124백만원이다. 당초 각 도서관별 분산형 통합검색시스템을 검토하였으나, 각 도서관별 검색 모듈 구입 및 도서정보 컨텐츠 구입 등의 연계에 제반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통합목록방식의 검색시스템을 구성하게 되었다.

통합 검색 목록 서비스 구축의 목적은 공공 도서관별로 분산되어 보유하고 있는 도서의 소장정보(도서이미지, 배가위치, 대출가능여부 등)를 통합하여 실시간으로 시민에게 서비스할 수 있고, 책 커버 이미지와 같은 비주얼 컨텐츠를 제공하고, 전문 검색엔진 도입을 통한 검색 서비스 환경(정확도, 속도 등)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도서 대출 이력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존에 회원이 각 도서관에서 대출하여 읽었던 도서목록을 인터넷을 통해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이 직접 자신의 대출(연체)현황을 모든 공공도서관

을 통합하여 조회할 수 있는 통합조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시스템 설치절차는 다음과 같다. 연계희망 도서관은 통합도서검색(목록)서비스 연계신청서를 제출하고, 한밭도서관에서 연계작업을 수행하며 연계되는 도서관의 추가 소요예산은 없었다. 기존 도서정보 및 대출정보 제공을 위해 연계시점을 기준으로 기준 도서정보(단행본 및 연속간행물 정보, 배가실관련정보, 대출정보 테이블, 기타 분류코드 등)를 통합도서목록 데이터베이스로 이전하였다.

2009년 1월말 공공도서관 전산협의회에서 서비스 시연과 상세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 서비스 구축으로 관내 공공도서관들의 도서소장정보가 실시간으로 서비스됨에 따라 대 시민 도서정보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되었고, 통합검색서비스를 각 도서관별로 인터페이스 변경이 가능하도록 설계함에 따라 개별 도서관 홈페이지 콘텐츠가 향상되었고, 검색자료를 통해 도서의 대출가능여부, 대출정도 등 도서관만의 기능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반 검색포털사이트 또는 인터넷 서점과 차별화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향후 계획으로는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유관기관 및 대전인근 지역의 도서관과의 연계를 통한 광역 도서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쇄도서와 전자책 등 도서관이 제공하는 모든 자료와 서비스를 단일 포인트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확대, 서평·태깅·평가 등과 같은 웹 2.0 기술접목을 통한 개인맞춤형 서비스 도입 등 도서정보서비스의 고도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3.3 대전지역 작은도서관 통합도서목록 서비스구축 지원

2008년도 한밭도서관홈페이지 개편사업으로 대전지역 공공도서관(19개소)의 보유자료에 대한 통합검색서비스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대출회원에 대한 대출이력서비스가 시작되었다. 공공도서관외에 관종별(초중고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지역 도서관 보유 자료의 통합목록서비스 및 검색서비스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공공도서관 통합검색서비스에 작은도서관을 추가하고 관내 도서관 안내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

한밭도서관에서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작은도서관 통합도서목록 서비스 구축 사업을 진행하였다. 사업비는 30백만원으로 국비, 지방비 매칭펀드 방식이다. 한밭도서관 홈페이지(정보검색)에서 수집된 작은도서관 DB를 통합구축하고 2010년 자료소장 규모가 많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등을 포함한 '광역차원의 도서관 정보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작은도서관 홈페이지(블로그 형태) 구축 지원 및 호스팅 서비스를 구축하였다. 관내 작은도서관(152개소) 웹서비스 기초자료 수집 및 블로그 운영환경 구축을 위한 작은도서관 사용자 교육 실시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한밭도서관 홈페이지에 관종별 도서관 안내(현황, 규모, 위치 등) 서비스가 포함된다.

작은도서관 통합도서목록 서비스구축으로 관내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소장자료에 대한 통합검색서비스 및 정보서비스 구축 지원에 따라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이며 작은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

의 대화채널이 확보되어 협력체계 구축기반이 마련 될 것으로 기대한다.

3.4 대전시 공공도서관 중장기발전전략 수립결과

대전시 공공도서관 중장기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은 대전지역 대학도서관과 다른 지역 공공도서관에 비해 출발이 늦어 기반이 열악한 대전지역 공공도서관부터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한밭도서관이 지역 공공도서관의 대표도서관으로서 2008년 주요과제로 추진한 결과 2009년 본예산 연구비로 확보하였다. 이 연구용역 방향은 단위 공공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고 2009년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주요사항을 도출하였다.

첫째, 도서관 수요자 선호도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도서관 육성 전개 방안이 제시되었다. 설문결과 도서관 건립 선호도는 중규모도서관(52.3%)과 집에서 가까운 도서관(67.5%)으로 나타났고, 어린이도서관 위치는 접근성이 가장 좋은 1층(93.5%), 도서관이용의 주된 목적은 일반열람실(30%) > 자료대출(25%) > 자료 열람실(18%) 순으로 조사되었고, 공공도서관 서비스 개선의 최우선 과제로는 최신정보자료 확충(63.7%)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대전시 공공도서관 행정체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시) 대표도서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셋째, 생활밀착형 6개 생활권역별(신탄진/유성/둔산/송촌/진잠/보문 생활권) 거점형 도서관 운영 방안이 제시되었다. 2015년까지 대전도시 기존계획인구를 근거로 6개의 생활권으

로 나누어 현재의 도서관 건축면적을 조사하고 인구 5만 명당 도서관 1개관의 건립기준을 목표로 하여 향후 계획도서관의 필요연면적을 산정하였다. 그리고 생활권별 계획 인구 5만 명당 필요한 도서관수, 현재의 도서관수를 고려하여, 건립되어야할 도서관 수를 15개관으로 산출하였다.

3.5 공공도서관-학교도서관 회원카드 인증제 시범실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협력 시범운영과 제로 '학교도서관 대출증 인증제'를 2009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의 학교와 유대강화 및 협력가능한 사업을 발굴 실시한 것으로,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에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제고하고 청소년 독서진흥을 위한 것이다. 공공도서관-학교도서관 회원 카드 인증제는 2000년 12월부터 시행한 '공공도서관 대출회원카드 공유제'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계획되었다.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공공도서관 협의회 대전지부 2009년 2차 정기회의(2009년 11월 11일))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논의되었다. 공공도서관-학교도서관 회원카드 인증제 시범실시에 대해 개별도서관 실정에 따라 일괄 실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이 안건의 세부추진은 실무자회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공공도서관 대출실무자 회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 개별 도서관 실정이란 소속 자치구에서 도서관을 신축하거나 개관예정으로 있어 도서관인력이 분산되거나, 대규모 주거단지 도서관이 위치하여

문화행사, 대출 업무가 과중하여 학교도서관 협력까지 여력이 없는 상황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중학교도서관 대출회원증의 공공도서관 인증은 최대사용기간 3년으로 대출회원증명서가 지속성이 있어야 하나 지속성이 없어 일정 기간 동안 공공도서관에서 시범운영 할 수 없는 연속성 없는 사업과제이다.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번호체계가 달라서 자료회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시 공공도서관에서 대처할 능력이 없음으로 학교도서관 대출증을 공공도서관에서 그대로 인증하여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있다. 학교도서관과 협력이 아니더라도 공공도서관은 지역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가까운 학교도서관 한곳을 선택하여 동 생활권내에서 이 제도를 통해 실물대출을 실시한다면 공공도서관의 입장에서는 지역사회 교육시설과 연계하여 공공도서관의 필요성을 더욱 각인 시킬 것이다. 공공도서관 회원 증대 및 청소년의 공공도서관 자료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실제적으로 학교도서관 대출증 하나로 학생증과 공공도서관대출카드 등 3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각종 평가에서 지역사회와의 협약을 통한 상호협력이 중요한 지표가 되고, 앞으로 공공도서관 대출회원 통합망을 구축할 것이며 더불어 학교도서관 이용자 통합망을 구축할 예정에 있으므로 시범 운영차원에서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무자회의에서는 논의 끝에 아래와 같은 협력대안이 도출되었다.

- 대안 1: 공공도서관에서 선택한 대상 학교도서관에서 발급한 대출증을 인정하되

공공도서관에서 공동사용을 위한 것이므로 공공도서관 대출증번호 바코드를 학교 도서관 대출증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인증 사용.

- 대안 2: 공공도서관에서 선택한 학교(도서관)에 대해 공공도서관 대출회원카드를 학교(도서관) 일괄 신청을 통해 일괄 발급 및 교부.

대안 1인 학교도서관 대출증 인증제를 2009년 11월부터 협의, 12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 협력기관은 한밭도서관-대문중학교, 학생교육문화원-충남여자중학교, 갈마도서관-대전갈마중학교이다. 대안 2인 공공도서관 대출증 학교도서관 일괄 발급은 각 공공도서관에서 2009년 12월부터 협의하여 2010년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협력기관은 대덕구 신탄진도서관-대전대청중학교, 대덕구 안산도서관-대전대화중학교, 동구 가양도서관-대전가양중학교, 동구 용운동도서관-대전용운중학교, 서구 가수원도서관-대전봉우중학교, 유성구 구즉도서관-대전두리중학교이다. 각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과 협의한 일정에 따라 실시하되 학교 신입생(1학년)을 대상으로 신학기에 각 공공도서관 대출회원카드를 일괄 발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협력과제 발굴과정과 학교도서관 대출증 인증제를 시범운영하기까지 회원 통합 등 개선점이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관종간 협력에 대해 공공도서관 관리자와 실무자의 인식 차이가 있었고, 개별 공공도서관이 처한 실정(지리적, 시기적 특성 등)이 다르므로,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최소 인력 보강 등 여건조성을 먼저 검토

해야 한다. 또한 학교도서관관리시스템(DLS) 상 대출증 번호가 중복되는 점과 차후 지역 공공도서관 회원번호 변경·통합망 구축 시 학교도서관 회원통합 구축을 감안하여 공유 가능한 대출증번호 코드 등을 사전 협의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업은 협력을 진행하는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증명서 공유를 시작으로 문화행사 안내 교류뿐만 아니라 해당학교와 연계하여 다양한 협력과제가 촉발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3.6 한밭-충남대학교 도서관 원문복사 서비스 시범 운영

2005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 한밭도서관과 충남대학교도서관은 대전시민과 충남대학교 구성원들에게 학술연구 증진을 위한 지식정보제공과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향토자료의 효율적 보존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공동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내용은 상호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으로 상호 학술정보 자원 제공, 지역향토자료 소장원문DB 공유체계 구축 등이다.

그 간의 협약이행은 양도서관 홈페이지 탑재 이외에 구체적인 이행사항이 없었다. 충남대학교도서관과의 합의에 의해 한밭도서관은 원문복사서비스를 시범운영하였다. 추진일시는 2009년 10월 5일부터 12월 30일까지이며, 추진방법은 서비스내용을 공지하고 신청받아 택배를 이용한 복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업무처리는 담당자간 이메일 또는 팩스신청이며, 처리기간은 당일처리 원칙(주말 또는 담당자 부재시 2~3일)이며, 담당은 한밭도서관은 제1자료실, 충남대학교도서관은 5층 정보서비스팀이다.

한밭도서관에서는 상호대차 협력을 위한 과금(課金) 등 업무 처리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상호대차시스템(책바다)에 가입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충남대학교도서관에서 업무량 폭주관계로 상호대차 시스템에 미가입하고 상호 담당자간 상호대차와 원문복사서비스 방안을 제시하였다. 상호대차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관계로 상호대차 이용은 대출과 반납 등 다중처리가 불가피하여 자료분실 우려 및 금전처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선 일방통행방식의 원문자료복사(논문)부터 시범 운영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다.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 간 가능한 협력과제를 발굴하여 실시하였으나, 공공도서관 이용자는 거의 없는 상황으로 광역시 안에서 택배를 활용한 원문자료 복사 등 상호대차는 실효성 있는 협력분야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실제로 공공도서관 이용자 대부분은 실물도서 상호대차를 원한다.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은 회원가입을 통하여 일반이용자가 대출 등 대학도서관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대전 지역의 특성상 굳이 택배비가 드는 한밭도서관(공공) 중계방식을 이용하지 않고도 차량으로 30분 이내에 있는 대학도서관에 직접 가입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공공도서관 이용자가 직접 대학도서관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비 등을 일정액 지불해야 한다. 대학도서관에서는 일반회원 가입비와 관련하여 공공도서관에서 미반납 회원부분에 대한 보장이 된다면 회원가입비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으나, 공공도서관 내부에서도 미 반납(시민공동 재산인 자료관리)에 대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므로, 대학도서

관 자료 미반납자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절충점을 찾을 수 없었다.

실물 상호대차를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이 전용차량을 운행하여 공공도서관 상호대출반납 담당자가 대학도서관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이용자 요구사항을 개선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대출전용차량구입 등의 예산확보 및 지원과 함께 미반납자에 대한 보정장치 개발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일반도서 중 연간 1/1000 이내에서의 자연감소분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 이용자 쌍방이 필요로 하는 협력과제 발굴이 요구된다.

3.7 대전시 도서관협약서 체결

도서관간 상호협력을 위해 협약을 맺는 것은 실제 협력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도서관을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협력을 위한 협회나 위원회, 자원 공유, 그 외에 다른 협력들을 고려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협정 체결은 기관장의 적극적 노력과 관계기관의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양기관장의 현실적인 노력과 실천의지가 필요하다.

도서관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각 관종별 도서관 관리자 및 실무자 간담회를 실시하여 각 도서관별 상황과 협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공공-대학간 기 협약을 맺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관종별 도서관 간담회'를 추진하고자 계획하였다. 1차(2009년 9월 17일)간담회에서는 참여한 도서관(자치구 공공도서관 3개관과 교육청소속 공공도서관 2개

관, 대학도서관 3개관, 전문도서관협의회 1개관, 공동연구원 5명)은 협력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협의체' 구성은 위해서는 각 개별도서관을 제외하고 관종을 대표하는 도서관을(추천)지정하여 「관종별 대표도서관 간담회」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었다. 또한, 「관종별 대표도서관 간담회」에서는 관종별로 - 대학도서관에서는 대전지역대학도서관협의회가 없는 관계로 대전·충청지역대학도서관협의회 간사관인 배재대학교도서관이 추천되었고, 공공도서관에서는 공공도서관협의회대전지부장을 맡고 있는 한밭도서관장이, 학교도서관은 학교도서관 행정을 맡고 있는 대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과 학교도서관업무지원단장이 거론되었다. 전문도서관은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가 대표성을 갖는 것으로 추천되었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대학-대학·충청지역대학도서관 협의회장, 공공-한밭도서관장, 학교-대전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전문-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장을 관종별로 대표성을 갖는 도서관으로 지정하고 관종별 대표도서관 관리자 간담회를 추진하게 되었다.

2차 간담회(2009년 9월 25일)인 「관종별 도서관 대표자 간담회」에는 공공도서관에서는 한밭도서관 자료정책과장, 학교도서관에서는 학교도서관업무지원단장, 교육청 학교도서관 담당과 담당장학관이 참여하였고, 전문도서관에서는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사무국장이 참석하였다. 2차 회의에서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합의되었고, 협의체 구성을 위해서는 협의체 구성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해야 한다고 잠정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협약서(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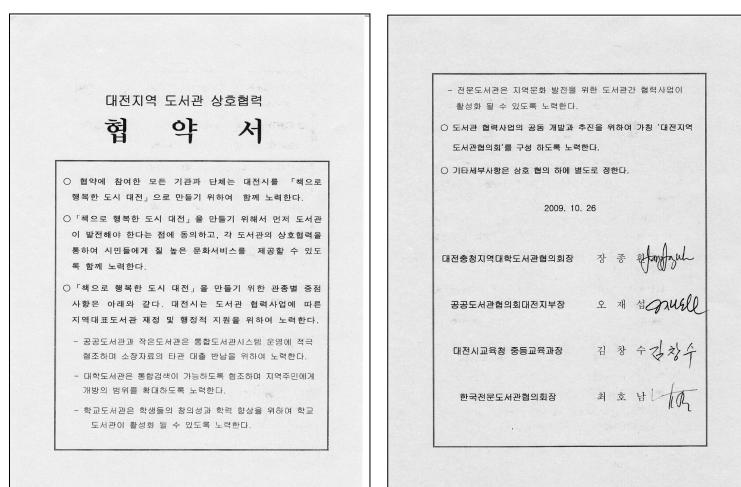
안)를 마련하여 각 관종별로 대표성이 있는 4 관종 협의회에 공람하여 협약서를 맺고자 추진하였다. 이번 협약은 시민들의 질 높은 독서 문화가 정착되기 위한 창의적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식과 정보를 동력으로 한 「책으로 행복한 도시 대전」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신뢰와 협동의 정신으로 참여기관들이 상호 협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체결된 대전지역 도서관 상호협력 협약서는 <그림 1>과 같다.

3.8 대전지역 도서관협의회와 희망의 책 대전 본부 협력사례 「우리대전 같은 책 읽기」

2009 「우리대전 같은 책 읽기」 사업은 대전시민 누구나 같은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들을 펼치며 다른 이들의 생각을 이해, 수용, 비판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독서토론 마당으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화합의 장이라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대전시와 희망의 책 대전

본부, 대전시교육청, 한밭도서관과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학교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북클럽, 언론 등 기관과 단체, 대전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이다.

(사)희망의 책 대전본부에서는 2009년 7월 8일 추진위원회 회의를 대전중구문화원에서 하였고, 관련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독서운동의 중요성을 상호 공감하고, 각 기관 및 단체에서 도서선정위원회를 추천하여 2009 「우리대전 같은 책 읽기」 사업을 추진할 것을 합의하였다. 도서선정위원회는 공공도서관, 학교, 독서클럽, 문화단체, 언론을 대표하는 17명으로 구성되었고, 작품의 완성도, 폭넓은 독자층, 토론주제의 다양성, 이벤트와의 연계성, 독자흡수력 등을 도서선정기준으로 정하고, 도서선정위원회 2~3 권씩 책을 추천하여 2차 회의부터 6차까지 5회의 토론회의를 거쳐 6차 회의에서 참석한 11명 선정위원의 만장일치로 안소영 작가의 「책만 보는 바보」를 「우리대전 같은 책 읽기」 도서로 선정하였다. 2009년 10월 27일 유성도서관 시



<그림 1> 대전지역 도서관 상호협력 협약서

청각실에서 대전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9 「우리대전 같은 책 읽기」 선정도서 선포식을 하고 선정도서를 배부하였다.

2009년 10월 28일부터 12월 24일까지 선정도서 「책만 보는 바보」를 17개 공공도서관에 도서관당 5~10권을 배부하여 일반시민에게 도서를 대출하도록 하여 1인당 7일 동안 읽고 다른 시민에게 돌려읽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책만 보는 바보」 글쓰기를 공모하였다. 2009년 12월 10일 유성도서관과 대전시립미술관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안소영 작가와의 만남과 북콘서트를 진행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2009년 12월 17일 대전시립미술관에서 공공도서관 2명, 100북스클럽 2명, 시민아카데미 2명이 토론자로 지정되어 북클럽 교차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2009년 12월 23일 '책으로 행복한 대전' 세미나를 대전광역시청 세미나실에서 진행하였다. 또한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2009년 11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나에게 책은 []다.』라는 이벤트를 개최하여, 각 도서관별로 2명을 선정하여 문화상품권을 시상하였다. 선정도서를 시각장애인이 읽을 수 있도록 점자도서로 제작하여 한밭도서관 시각장애인실, 대전점자도서관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시각장애인 전용 온라인채널 '넓은마을'에 텍스트를 업로드하였다.

3.9 지역대표도서관 지정 운영 및 시범사업을 통한 시사점

지역대표도서관 업무추진 상 장점으로는 첫째, 지역대표도서관은 각 광역자치단체장이 설립·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지정이 비교적 수월

하였다. 대전지역 공공도서관의 특성은 지자체 소속도서관이 교육청소속도서관보다 월등하게 많고 한밭도서관은 도서관 시설 규모와 장서에서 여타도서관보다 월등한 수준이다. 둘째, 한밭도서관은 광역시의 사업소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 보조기관(문화예술과)과의 관할체계로 내부결재라인 조직으로 운영되는 장점을 들 수 있다. 현 조직은 도서관 시설 육성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문화시설담당)에서, 지역대표도서관은 독서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도서관 진흥관련 사안 발생시 대표도서관에서 직접 문화체육관광국을 통해 내부 결재로 현안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셋째, 대표도서관 지정이전 한밭도서관은 도서관 자체사업 및 발전계획 등을 의도하였으나, 지역을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지정이후, 대전시민 전체를 위해 도서관의 상호 협력 등 지역 도서관 발전 정책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기본 마인드가 형성되었다. 특히 광역 도서관 정책을 담당할 조직이 신설되어 지방 도서관정책 주체로 형성되어 가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관종을 초월하여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관종간 소속 기관장들이 발전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역대표도서관 운영결과, 지역대표도서관의 지정에 따른 업무추진 상 단점으로는 첫째, 대전광역시 지역대표도서관 조직구조의 문제를 들 수 있다. 현 조직은 지역대표도서관이 광역차원의 도서관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조직되어 있기보다는 기존의 공공도서관의 자료관리 및 열람 서비스에 비중을 크게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존 한밭도서관을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였기 때

문에 내부적으로는 기존에 없던 조직이면서, 자료를 중심으로 하는 자료지원 및 대민열람을 중심으로 하는 사서과의 하부조직으로 존재하여 업무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대표도서관업무가 대외적 협력 및 지역의 전도서관을 대상으로 지역 도서관정책 담당을 주임무로 하였으나 사서(자료정책)과의 주무담당으로서 내부과제와 포괄적 정책이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현 조직은 「도서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도서관정책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공도서관 조직 구조와는 차별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둘째, 광역자치단체 소속 사업소형태로 운영되어 행정체계 다원화에 따른 광역차원의 도서관정책 수립과 조정의 문제를 들 수 있다. 공공도서관내부에서 조차 자치권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사업소 및 교육청소속 직속기관 형태로 운영되어 업무처리를 위한 어떠한 권한 없어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기에는 어렵다. 공공도서관 내부에서도 교육청 기관장, 광역시소속, 자치구 소속도서관을 관장하는 단체장의 의지와 각각의 인사권한으로 대표도서관중심의 협력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어렵다. 광역자치단체 보조기관(담당국)이 지방 도서관 정책을 권한 없이 지역대표도서관에 전가하는 현상이 발생할 여지가 많고, 광역단체 내부에서도 대표도서관의 법적지위 및 역할 등을 인식하지 못하여 지역대표도서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

셋째, 새로운 도서관법에 따라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의 역할 분담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중앙정부는 광역도서관 정책추진 체제로의 기반

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대표도서관 설립과 지정에 따른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원하고 육성해야 하나 법적 지원 근거가 미흡하다. 지역대표도서관은 새로운 광역도서관 정책체계에 적응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 확보를 필요로 하지만, 지역 실정에 맞는 도서관 시책 수립, 조정이라는 이유로 대표도서관 설립 및 지정사후 종합계획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도 대표도서관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낮아 대표도서관 업무추진 관련 예산 미확보 시 기형적으로 운영될 개연성이 내재되어 있다.

넷째, 지방도서관 정책의 일관성 문제를 들 수 있다. 공공도서관 건축 등은 광역자치단체 보조기구(담당국)가, 독서진흥과 지방정보서비스위원회 등은 대표도서관이 기능을 분담하게 됨으로서 일관성 있는 지방도서관정책 수립 조정에 어려움이 있다.

다섯째, 지역대표도서관 위상과 관련된 문제를 들 수 있다. 광역도서관 정책차원에서 공공도서관은 운영체계 및 균형 있는 도서관 육성을 포함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 시점이나,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사업소 기구에서 지역 도서관 정책 수립 및 운영인력이 포함되는 도서관 행정기구 개편, 도서관 육성기준 조정 등을 추진하기 어렵다.

여섯째, 도서관정보서비스 위원회 운영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예산은 연간 2차례 회의 시 참석수당 수준에 불과하고, 위원회의 활동에 따른 실질적인 결과물은 물론 예산 및 인력지원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을 논

의하고 개발하기 위한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으로 볼 수 없다.

4.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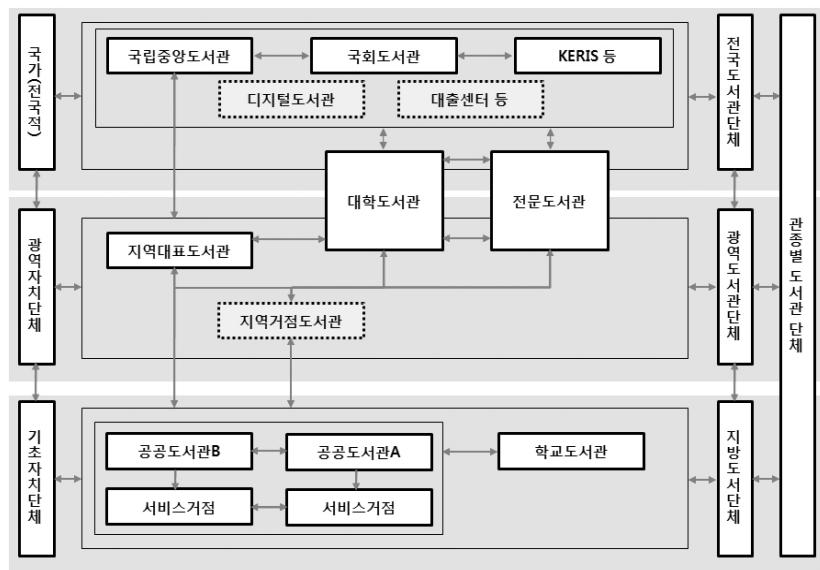
4.1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지역단위 협력모델

이 연구는 지역 내 도서관간의 협력체계 구성을 및 시범운영을 통한 지역대표도서관 협력모델의 개발이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선행 연구(문화관광부 2007)에서 제시한 협력체계 모델(그림 2)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적용하고자 하였다. 대전시 도서관 사서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협력에 대한 설문과 간담회, 시범운영 결과에

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협력모델에 대체적으로 동의하였지만,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면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파악되었다.

〈그림 2〉의 도서관 협력체계 모델에서 지역 단위 협력체계는 우선 기본적으로는 공공도서관과 서비스거점을 중심축으로 하되 해당 지역 내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등 모든 유형의 도서관을 포괄하는 종합적 협력체계를 지향한다. 대전시 도서관 관계자의 설문과 관종별간담회와 전체간담회에서도 이 모델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도서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었다.

설문결과, 도서관 사서의 89%가 다른 관종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전문도서관 소속 응답자 전체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다만 학교도서관 소속 응답자 중 5%는 협력이 필요없다고 응답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관종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



〈그림 2〉 각 단계별 도서관 협력체계 모델

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공공도서관을 중심축으로 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공도서관의 기본 인프라 향상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협력 모델에서 협력의 범위와 관련하여, 지역단위의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것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7%가 동의하였다. <그림 2>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이 지역단위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전국적 수준의 도서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비교적 타당한 모델로 사료된다. 설문 전체적으로 도서관 협력활성화에 가장 적합한 지역범위로는 광역시 차원, 전국단위 차원, 시군구단위 차원 순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관종별로 의견 차이를 보였으며, 기초자치단체 수준과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의 협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도서관은 80%가 광역시 차원의 협력에 동의하였고,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협력에 대해 7%만이 동의하였다. 공공도서관은 기초자치단체 수준보다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공도서관은 공공도서관 내부적으로 지역대표도서관과 지역거점도서관을 중심으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대전시 공공도서관 중장기 발전전략에서도 지역대표도서관과 지역거점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모델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지역거점도서관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2009). 학교도서관은 구단위 또는 동단위의 협력에 94%가 동의하였다. 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협력에 학교도서관이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한편으로 학교도서관 협력과 관련하여 초등학교도서관간, 중학교도서관간, 고등학교도서관간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대학도서관은 60%

가 광역시 차원의 협력에 동의하였다. <그림 2>에서 대학도서관은 광역자치단체 수준으로 포함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학 도서관들이 일반 시민에게 열람공간 및 자료이용을 개방하면서 지역 시민을 위한 서비스에 보다 열린 자세의 단면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전문도서관은 전국범위 46%, 광역시 31%순으로 나타났다. 대학도서관은 지역 단위를 선호하는 반면, 전문도서관은 전국단위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전문도서관과의 협력은 한정된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설문결과를 종합해 보면, 관종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국적 협력체계 인프라가 구축됨에 따라, 지역도서관간 상호대차서비스와 도서관포탈전산망 구축 등에서 지역적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협력 시 관종 간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대전시 도서관 관계자 설문과 간담회 결과 동일 관종간, 즉 공공도서관간(문고 등을 포함) 또는 학교도서관간, 대학도서관간의 협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개별도서관 인프라를 구축하고 동일관종간 협력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도서관 협력은 기본적으로 규모에 관계없이 각 개별도서관 자체의 역량이 충실하게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도서관 협력은 개별 도서관이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일부 필요한 서비스를 다른 도서관의 역량을 빌어 해결한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08). 관종별로 대학도서관은 72%가 대학간 협력을 우선해야 한다고 했으며, 공공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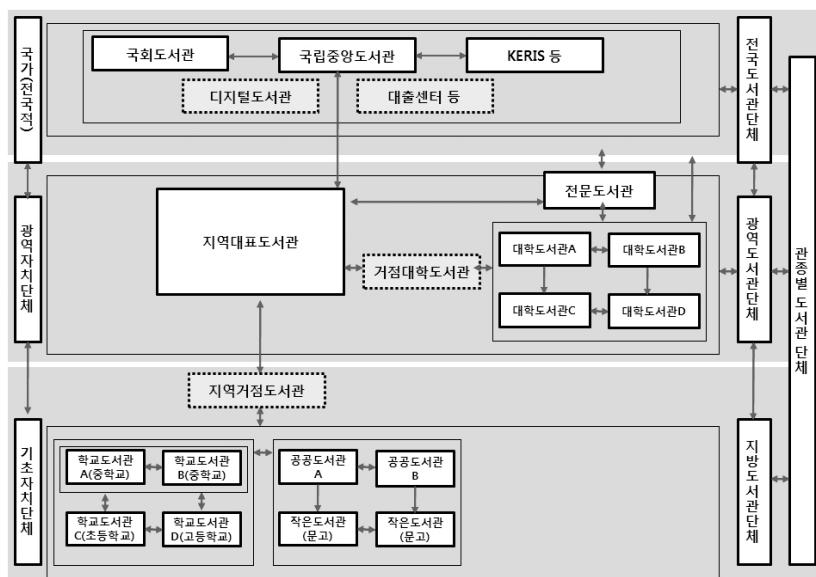
관은 73%가 공공도서관부터 협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관종간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공공-학교(21%), 대학-전문(20%) 협력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모델에서 제시되는 것과 같이 기초자치단체수준에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간의 협력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관종간 협력은 우선 공공도서관부터 협력을 다지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과 학교도서관과의 협력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나타났고, 학교도서관은 공공도서관과 우선 협력관계를 설정해야 할 관종이며, 전문과 대학도서관은 그 협력성격이 여타 관종에 비해 상호간 접근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공공과 학교, 대학과 전문, 둑음형식으로 협력을 전개할 때 수월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지역대표도서관과 관련하여 대표도서관은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면 최우선적으로 상호대

차 원문복사서비스를 포함한 도서관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대표도서관이 도서관 협력을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협력과제로 전체적으로 예산확보(41%) > 인력확보(20%) > 정보관리통합시스템(1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대표도서관이 협력에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이 많이 지적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견을 종합해 보면, 도서관 협력체계 모델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모델을 유지하되, 실제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그림 3>과 같이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3> 모델에서 협력 관종과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일차적으로 공공도서관간(문고 등을 포함) 협력 또는 학교도서관간 협력이 우선 추진되고, 공공-학교도서관간 협력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기초자치단체 단위에



<그림 3>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협력체계 모델

서 학교도서관 협력은 초등학교 도서관간 협력, 중학교 도서관간 협력, 고등학교 도서관간 협력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내에서의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거점도서관을 설정할 수도 있다.

다음 단계로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 지역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거점도서관이 연결된다. 대학도서관간의 협력이 먼저 이뤄지며, 지역대표도서관과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거점대학도서관을 둘 수 있다. 전문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의 협력이 이루어지며, 지역대표도서관은 거점대학도서관과 전문도서관과 연결된다.

〈그림 3〉에서는 대학도서관 분야에서 거점대학도서관이 지정되고, 대학도서관의 협력이 구체화되었는데, 이와 같이 대학도서관이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최근 대학도서관들이 지역정보 중심대학으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역이용자들에게 도서관을 개방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개방을 통해 도서관 공간 이용은 물론 소장 자료를 대출해주고 있다. 이러한 열린 자세는 지역대표도서관과 협력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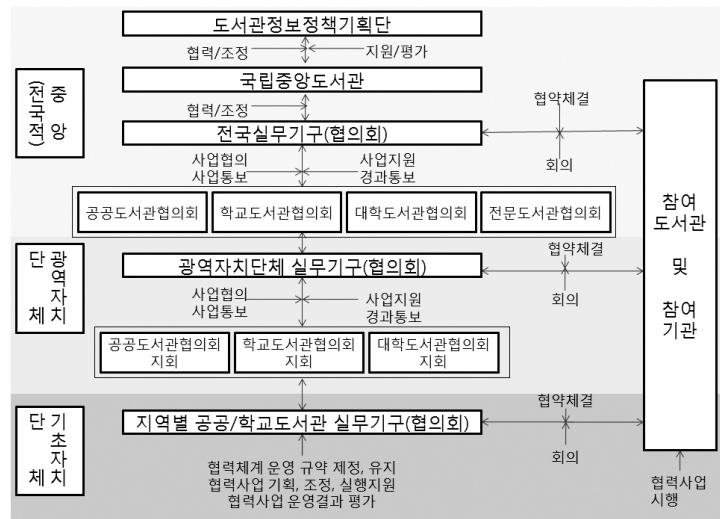
4.2 협력 모델을 위한 운영 모델

협력을 위한 운영 모델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필요한 실무기구(협의회)를 구성하고, 이 협의회에서 주로 '협력체계 운영 규약 제정과 유지', '협력사업 기획과 조정, 실행지원', '협력사업 운영결과 평가' 등을 한다.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도 필요한 실무기구(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이 실무기구는 사업지원과 사업통보 등의 주요업무를 맡게 된다(문화관광부 2007).

대전시의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의 협력실무기구는 앞의 〈표 1〉과 같다.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관종별 도서관을 아우르는 관종별실무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 공공도서관은 공공도서관 협의회 대전지회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고, 전담직원을 둘 필요가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협의회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으로, 지역대표도서관과 지역거점도서관을 중심으로 협력체제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거점도서관을 중심으로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전지역내 학교도서관의 대표성 있는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에서는 대전지역협의회를 두고 있으나, 실제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실제로 협약서 체결과 관련하여 대전지역 '학교도서관 운영지원단'은 공식적인 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협약서 사인을 거부하였고, 학교도서관과 교육청 쪽의 의견 조율로 학교도서관 행정을 맡고 있는 대전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이 추천되었다. 그러나 중등교육과는 학교도서관 전담부서도 아니고 중등교육과장은 대표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학교도서관 자체의 협의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청에 도서관을 전담할 수 있는 담당 설치 및 사서교사의 배치가 선결과제이다. 대전시교육청에 학교도서관업무 담당자가 있으나 총 287개 학교를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여건 조성후에 학교도서관은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학교도서관 대전



〈그림 4〉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협력체계 운영모델

지역협의회가 제대로 결성되어 활동해야 하고, 설문 및 간담회에서 언급되었듯이 기초자치단체의 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한 소협의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간 실무기구는 개별도서관간 사안에 따라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협약을 맺는 식으로 협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대학도서관 부분에서도 대전·충청지역 대학도서관협의회가 있으나, 대전이라는 지역으로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대전지역 대학도서관협의회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전·충청지역 대학도서관협의회가 4년제 대학 위주로 협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지역의 전문대학 등에도 문호를 넓혀 대학 간 완전한 협력체계 구성이 요구된다. 전문도서관의 경우, 지역보다는 주제로 한정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전문도서관의 실무기구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운영 모델이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협력체계 운영모델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림 4〉와 같이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3 협력 사업의 범주와 범위, 수준

위의 협력모델과 운영모델은 협력 사업의 범주와 범위,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전시 관종별 협력사업 중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범주와 설문조사·간담회 결과 요구하고 있는 협력 사업의 범주는 〈표 6〉과 같다.

먼저 상호대차에 대해 살펴보면, 동일 관종 간 상호대차는 학교도서관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루어지고 있다. 상호대차 특히 지역적 차원의 실물대차 요구와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학교도서관간과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간 상호대차의 요구가 있었다. 또한 공공도서관은 대학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은 교직원을 위한 대학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은 전문도

〈표 6〉 대전시 관종별 협력사업의 현황과 요구

구 분	공공 도서관간		학교 도서관간		대학 도서관간		전문 도서관간		공공 - 학교간		공공 - 대학간		공공 - 전문간		학교 - 대학간		대학 - 전문간	
	현 행	요 구	현 행	요 구	현 행	요 구	현 행	요 구	현 행	요 구	현 행	요 구	현 행	요 구	현 행	요 구	현 행	요 구
상호대차	○	○		○	○	○	○	○	○	○						○		○
도서관정보화 (소장자료 통합검색)	○	○	○	○	○	○	○	○	○	○								
공동보존		○		○		○		○				○						
문화프로그램	○	○	○						○	○			○					
홍보	○	○					○	○	○	○			○					
분담수서	○	○																
관외대출증	○	○			○	○	○	○	○									

서관과 상호대차의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대차를 위한 협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선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예를 들어 대학도서관은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기관으로 원문중심의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의 경우 회원가입 절차를 걸쳐 시민 이용자에게 시설 이용 및 도서 대출을 서비스하고 있다. 협력의 차원에서 상호대차가 이루어지더라도 현재 회원가입 절차 없이 도서 대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은 자관 자산관리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다. 실물대차와 관련하여, 관외대출증 공유는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동일관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간 관외대출증 공유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다음으로 자료통합검색시스템에 대해서 보면, 대전지역내 도서관들은 각 관종별(공공 / 학교 / 대학 / 전문)로 서로 다른 도서관자동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대전지역 관종 통합연계시스템은 미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각 관종 중심의 전국단위 종합목록자료검색시스템

(KOLAS-NET(공공 557개관), DLS(학교), Riss4U(대학 569개))만 구축되어 있어,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 개별도서관의 홈페이지에 일일이 접근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지역단위, 국가단위 다관종 상호간의 통합 연계 시스템 구축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공동보존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전의 동일 관종간과 타 관종간에도 공동보존을 위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나, 이에 대한 필요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보존과 관련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공동보존에서는 대중적인 성격의 것은 지역대표도서관이 운영하는 지역공동보존소에서, 전문적인 성격의 것은 주제별 전문도서관에서 아카이빙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분담수서는 공공도서관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른 관종에서는 요구가 없었다.

또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를 위한 협력부분에서는 공공도서관간, 학교도서관간,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간 협력이 이루어지고

〈표 7〉 협력사업 범주(안)

구 분	국가 (전국 수준)	광역단체수준			기초단체수준		
		동일 관종간		타 관종간	동일 관종간		타 관종간
		대학 도서관간	전문 도서관간	전체관종간(지역 대표도서관 중심)	공공 도서관간	학교 도서관간	공공- 학교간
상호대차(실물상호대차)	○	○	○	○	○	○	○
관외대출증 및 복사카드 공유		○	○	○	○	○	○
문화프로그램				○	○	○	○
홍보			○	○	○	○	○
분답수서	○			○	○		
공동보존	○			○			
납본	○			○			
직원교육/커뮤니티	○	○	○	○	○	○	○
도서관정보화(소장자료 통합검색)	○			○	○	○	○
상호대차(원문복사서비스)	○			○			
협력형디지털정보서비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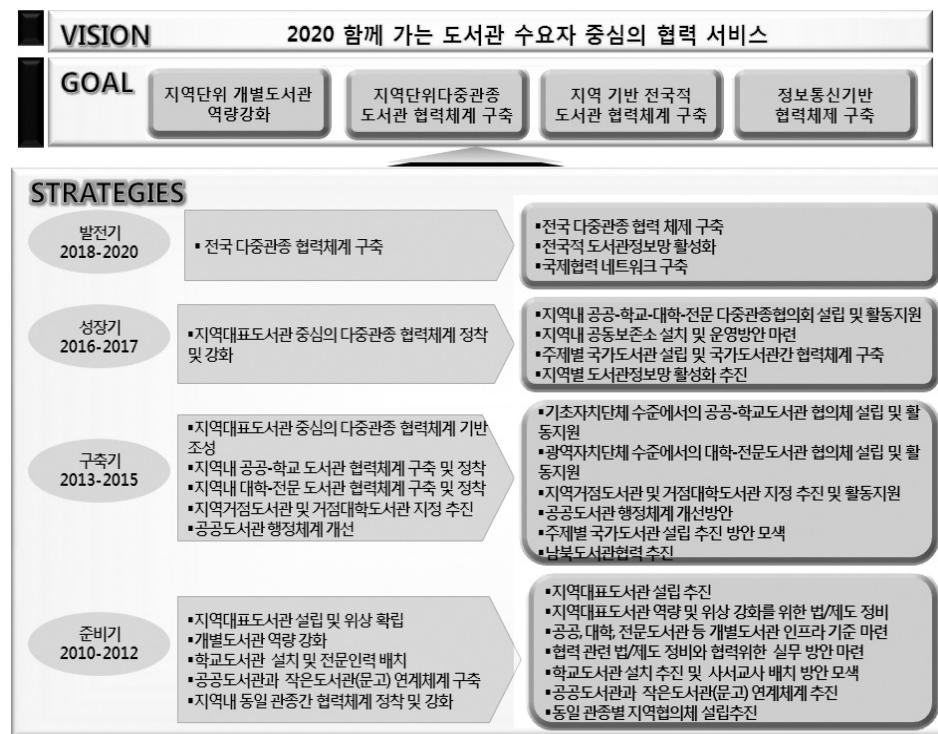
있다. 독서활동을 통한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유아를 위한 일일현장학습, 책 읽어주기, 동화구연, 어린이를 위한 초등독서교실, 체험학습, 방학특강, 인형극, 독서동아리, 독서상담, 중·고등학생을 위한 청소년 논술 프로그램, 독서동아리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를 위한 협력은 체계적이라기보다는 개별도서관간 협력에 그치고 있어, 지역 전체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문도서관에서 문화프로그램 홍보에 대한 협력 의사를 밝히고 있어 고무적이다. 이러한 문화프로그램은 대전시 전체 차원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대전 같은 책 읽기」 등의 사업과 연결할 필요가 있다.

〈그림 3〉, 〈그림 4〉 협력모델과 관련하여 지역/전국 차원, 협력관종 차원, 협력범위 차원 등 3가지 요소를 잘 융합할 필요가 있다. 지금 까지 논의된 설문, 간담회, 국내사례 분석을 통

해 협력 사업 범주에 대한 안을 제시하면 〈표 7〉과 같다.

4.4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 전략

선행연구에서 설정된 목표와 발전전략의 실제적인 적용을 위한 세부전략은 〈그림 5〉와 같다. 준비기(2010년-2012년)는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협력체계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시기이며, 이 시기의 추진전략은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 및 위상확립, 개별도서관의 역량강화, 학교도서관 설치 및 전문인력배치,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문고) 연계체계 구축, 지역내 동일 관종간 협력체계 정착 및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구축기(2013년-2015년)는 지역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단위 다중 관종 협력체계 구축의 초기단계이며, 이 시기의 추진전략은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다중 관종 협력체계 기반



〈그림 5〉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협력체계 비전과 전략

조성, 지역내 공공-학교 도서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착, 지역내 대학-전문도서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착, 지역거점도서관 및 지역거점대학 도서관 지정 추진,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개선 등이다. 성장기(2016년-2017년)는 지역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단위 다중 관종 협력체계 구축이 완성되는 시기이며, 이 시기의 추진 전략은 지역대표도서관을 중심의 다중 관종 협력체계 정착 및 강화를 들 수 있다. 발전기(2018년-2020년)는 지역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단위 다중 관종 협력체계가 지역마다 완성되는 시기이며, 이 시기의 추진전략은 전국 다중 관종 협력체계의 구축이다.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대전시 도서관 사서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협력에 대한 설문과 간담회, 시범운영결과를 종합하고 협력 지역별위별, 관종별, 분야별 차원을 고려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협력체계 모델의 실제적 적용을 위해 구체화 한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협력체계 모델'과 '운영모델', '협력 사업 범주'를 제안하였다. 또한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실제적인 추진전략을 준비기(2010년-2012년), 구축기(2013년-2015년), 성장기(2016년-2017년), 발전기(2018년-2020년)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단계별 추진계획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협력이라는 큰 명제에는 다들 동의하였지만, 예산, 인력, 자료, 시설(장비) 등 인프라 구축 미비 등의 장애요인으로 실제적인 협력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실무자가 많았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행정·재정적 지원체계의 구축방안이 필요하다. 지역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보완 및 지방대표도서관 지정에 따른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 설립 또는 지정된 지역대표도서관에 대하여 지역대표도서관설치의 법적취지를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지역대표도서관 중심 협력사업을 위하여 국가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지역대표도서관 국비 지원 근거를 시행령에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공동보존과 같이 지역대표도서관에서 필요로 하는 공통사업에 국가예산 지원 범위 또는 방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력은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한 구조적인 문제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보다 인력 확보시 고도의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다. 특히 신규 도서관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위탁 등의 방법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에서는 법정직원을 확보해줄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도서관 정책과 지역대표도서관 조직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지방도서관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하도록 되었으므로 광역자치단체의 도서관정책을 담당할 부서(과단위(4) 또는 담당급(5))를 두고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관장하여야 한다.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 위원장을 광역자치단체장, 부위원장은

대표도서관장으로 두도록 되어 있어 위원장 하향조정 등 대표도서관에서 '동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한계가 발생하므로, 위원장은 동일하게 하되 대표도서관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제안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변용 운용될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지방도서관 정책을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조직표준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제대로 운영하는지를 계속 지도, 감독 할 수 있는 상시 조직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방도서관 정책을 포괄하고 지도, 감독, 관리하는 국가도서관 정책부서는 지속되어야 한다.

넷째, 행정체계 일원화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지역대표도서관은 단일 사업소로 기초자치단체 공공도서관조차도 관할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앙에서 도서관 소속기관을 통합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대표도서관 인센티브(국비)가 있어도 사업소에서 구도서관으로 직접 분배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최소한 지방자치단체 도서관을 포함한 단일 사업본부형태로 관리가 통합되어야 하며, 대전의 경우 문화체육국 도서관정책과(도서관정책담당) 조직이 광역단체 보조기관으로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지역대표도서관과 단위공공도서관의 역할을 구분하는 내용으로 법령 혹은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서관법에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대표도서관과 공공도서관과의 차별성이 부각되지 않아 혼란이 초래되므로 도서관별 역할을 구분하는 내용을 법령 혹은 시행령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지역대표도서관을 통한 납본 제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도서관법 제26조의 조항이 국립중앙도서관과의 역할 분담 차

원인지, 아니면 단순히 지역정보 자료를 수집 보존하는 역할을 강조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차제에 납본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대부분의 지역정보자료가 책자형태와 함께 전자원문 형태로 발간되기 때문에 지역대표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으로 대별되는 납본처를 일관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재정립하고, 지역 정보자료는 지역대표도서관으로 납본 창구를 단일화하며 보존 활용하는 한편 원문을 공개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령 및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곱째, 도서관법 제23조 4항에서는 지역대표도서관이 지역 내 공공도서관의 수집 정책을 지원하고 수집된 도서를 이관 받아 보존하도록 하는 공동보존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명시하였다. 그러나 수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관 받은 자료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보존 공간 및 관리 운영 예산 등의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 지원에 대한 법령 조항이 추가되어야 한다.

제도적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도서관법에서 협력을 위한 근거를 확대하고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상호대차 등에 관한 법적 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셋째 도서관정보망을 개별도서관 운영 시스템에서 지역 단위 또는 전국적 도서관 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문화관광부 2007).

대전지역 도서관은 자관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필요에도 부응할 수 없는 장서현황, 다양한 도서관 협력사업과 같은 도서관의 전문서비스의 기획이나 실천이 어려운 사서상황, 다양한

협력사업과 문화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부족한 예산현황으로 협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도서관 협력을 위해서는 지역대표도서관은 물론이고 개별도서관의 역량 또한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 하므로, 개별도서관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중앙 정부 차원에서 획기적인 예산 및 인력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도서관 협력체계를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이 생활권 중심으로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공공도서관의 전반적인 자료 부족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예산을 확충하는 한편 지역대표도서관과의 협력으로 공공도서관끼리 공동 수서, 분담 수서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 효율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도서관 정책 및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은 지역대표도서관에 일임하고, 개별 공공도서관은 이용자 서비스 개선, 생활 밀착형 서비스 강화 등을 위하여 조직과 기능을 재정비해야 한다.

또한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학교도서관의 저조한 사서교사 배치 비율을 시정하여 전문 인력의 획기적인 증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도서관법에 제외되어 있는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배치 기준을 명시적으로 마련하고 연차적인 충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학교도서관에 지원되는 예산의 부족으로 장서확보가 여의치 못하므로 학교도서관 장서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교육청 차원의 우량도서 기증 운동 등을 통해 체계적인 장서 확충 사업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청의 경우 학교도서관을 지원할 수 있는 과단위의 부서와 전문 인력을 충원하여 배치해야 한다.

대학도서관 역시 적은 인원으로 정보화시대

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를 감당하기가 어렵고, 도서관의 협력업무 등 새로운 사업 및 서비스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도서관법의 도서관 직원(사서) 배치 기준에 대학도서관의 사서직원 배치 기준 역시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지역의 주민을 위한 대학도서관 개방 및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과격적인 인센티브 부여 등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대학 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도서관도 지역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하고 지역 대학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전문도서관은 협력의 문제에 있어 지역적 네

트워크와 함께 주제 네트워크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소규모 전문도서관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야 한다. 예컨대 대전의 경우 동일 관종의 협력에서는 대덕밸리의 중소기업체와의 협력 등에 정부의 협의회 지원이 필요하며, 국가적으로 중소기업 전문도서관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도서관 정책과제에서 협력은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도서관 내부적으로는 도서관협력정책을 위한 협력철학이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 또한 협력이 각 관종 이용자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내부에는 어떤 도움이 되는지 설득력 있는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6. 『학교도서관정보화기반체계(DLS) 운영·지원』.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2]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홈페이지. 2009. [online]. [cited 2009.8.10].
<<http://www.knula.or.kr/index.php>>.
- [3]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2009. [online]. [cited 2009.7.1]. <<http://nl.go.kr>>.
- [4] 국립중앙도서관. 2007. 『도서관협력망 운영실태 조사에 관한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5] 국립중앙도서관. 2001. 『도서관협력망 협력사업 표준모델』.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6] 대전광역시 한밭도서관. 2009. 『대전시 공공도서관 중장기 발전 전략 연구』. [대전]: 대전광역시 한밭도서관.
- [7]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08.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2013』. [서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8] 문화체육관광부. 2007. 『전국적 도서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9] 문화체육관광부. 2008. 『도서관 협력체계 시범사업을 통한 확산방안 연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10] 교육인적자원부. 2006. 『학교·공공·대학도서관 연계를 통한 도서관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11] 정독도서관. 2008. 『서울시 공공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 [서울]: 정독도서관.

- [12] 정현태. 2006. 지방분권과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 『도서관문화』, 47(12): 39-48.
- [13] 한국도서관협회. 2008. 『한국도서관연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14] 한국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 홈페이지. 2009. [online]. [cited 2009.8.1].
⟨<http://www.kpula.or.kr/index.php>⟩.
- [15]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홈페이지. 2009. [online]. [cited 2009.9.10].
⟨<http://www.ksla.info/index.html>⟩.
- [16]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홈페이지. 2009. [online]. [cited 2009.10.3]. ⟨<http://ksla.net>⟩.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orea Education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2006. *Hakgyodoseogwanjeongbohwakibancheje(DLS) Unyoung · Jiwon*. Seoul: Korea Education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 [2] Council On National Colleage & University Libraries Homepage. 2009. [online]. [cited 2009. 8.10]. ⟨<http://www.knula.or.kr/index.php>⟩.
- [3]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Homepage. 2009. [online]. [cited 2009. 7. 1]. ⟨<http://nl.go.kr>⟩.
- [4]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2007. *Doseogwanghyeoplyoekmang Unyoungsiltae josae Gwanhan Yeongu*. Seoul: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 [5]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2001. *Doseogwanghyeoplyoekmang Hyeoplyoeksap Pyojoon-model Gaebal Yeongu*. Seoul: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 [6] Daejeon Hanbat Library. 2009. *Deajeonsi Gonggongdoseogwan JungJangki Baljeon Jeonlyak Yeongu*. [Daejeon]: Daejeon Hanbat Library.
- [7]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2008. *Doseogwanjonghapbaljeongyeheok : 2009-2013*. [Seoul]: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 [8]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07. *Jeongukjeok Doseogwan Hyeoplyeokchegye Guchuk Bangahn*. [Seoul]: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9]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08. *Doseogwan Hyeoplyeokchegye Sibeomsaupul Tonghan Hwaksanbangahn Yeongu*. [Seoul]: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10]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6. *Hakgyo · Gonggong · Deahakdoseogwan Yeongyereul Tonghan Doseogwan Hwalseonghwa Bangahn Yeongu*. [Seoul]: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11] Jeongdok Public Library. 2008. *A policy study for the long-term enhancement planning*

- of public libraries in Seoul.* [Seoul]: Jeongdok Public Library.
- [12] Hyun-Tae Jeong. 2006. "Jibangbungwongwa Giyeokdaepyodoseogwanui Yeokhal." *Doseogwanmunhwa*, 47(12): 39-48.
- [13]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08. *Korea Library Year Book*.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14] Korean Private University Library Association Homepage.. 2009. [online]. [cited 2009.8.1].
⟨<http://www.kpula.or.kr/index.php>⟩.
- [15] Korea Special Library Association Homepage. 2009. [online]. [cited 2009.9.10].
⟨<http://www.ksla.info/index.html>⟩.
- [16] Korea School Library Association Homepage. 2009. [online]. [cited 2009.10.3].
⟨<http://ksla.net>⟩.

